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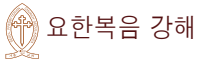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요 2:12-17)

이종윤 원로목사

1. 요한복음 2:12에 대한 이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요 2:12)

12절은 11절과 13절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12절에는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끝내신 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잠깐 머무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매우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살던 곳, 그래서 ‘나훔의 동리’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낮은 곳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마태복음 9:1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잔칫집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가셨습니다(요 2:12). 여기서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제자는 네 명의 제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성전 청결이 의미하는 것

(1) 예수님의 관심

13-17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12 이하, 마가복음 11:15 이하, 누가복음 19:45 이하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장면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러 가시면서 행하신 일인데,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행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유월절이 세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청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2) 거룩의 침해에 대한 분노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와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엮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 사람들의 통화이고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새겨진 돈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만들어 문 밖에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돈을 가리켜 ‘세겔’이라고 합니다. 하

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을 지어놓고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3) 심판자로서의 권위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6:16을 보면 진노하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흑자는 우리도 부정과 잘못을 볼 때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근거한 신학이 혁명신학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WCC)가 왜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독재하는 아프리카의 모든 정부를 때려 엮고 혁명의 전사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허울을 입고 인본주의 신학의 근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해방신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혁명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위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혁명을 해서 교육 · 정치 · 사회 ·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심판자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심판하고 나오면 교회에는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킨 분이 아니고 화평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잃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칼로 혁명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장 진리인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18(월) - 11. 23(토) 새벽 5:00 - 6:00 / 강사 : 박순오 목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라는 주제로 달려온 사명자대회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혼란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기도해 힘쓰는 사명자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한다.

올해 사명자대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롭게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기도제목과 교회 회복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사도로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기 위해 성공적인 특별새벽기도회가 되도록 하자.

11월 18일(월) - 23일(토) 새벽 5시에 있을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박순오 목사

- 강사 약력 -

- 서울대 공대 졸업(B. Eng.)
- 총신 신대원(M. Div.)
- Covenant 신대원 수학,
- 웨스트민스터 신대원(Th.M. 수료)
- 계명대 대학원(Ph.D.),
- 대구 서현교회 담임 조기 은퇴,
- (합)총회 교육부장
- 대구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권징 건 - 심리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지정

판결 : 12월 10일(화) / 화해조정 : 11월 25일(월), 12월 3일(화)

총회재판국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2시 김시환 집사 등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장 및 비밀번호 변경,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무단 변경, 불법 용역동원 및 불법 장로임직 관련 권징청구 건에 대한 직접 재판절차에 착수하여 무려 1시간 20분에 걸친 심도 있는 심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12월 10일(화)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재판에는 고소인 대표 김시환 집사와 변호인으로 송인권 장로가 참석하였고, 박노철 목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최병호 목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날 다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들이

입장하는 오전 시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측 120여 명의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재판정 밖에서 계속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였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위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1월 25일(월)과 12월 3일(화) 2회에 걸쳐 양 당사자 측을 함께 불러 화해조정 기회 갖겠다며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해가 불성립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별도로 박노철 목사가 불법용역 동원

서울교회 침입과 관련하여 핵심 용역원 2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 이번 주 11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시행된다.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재판에서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로써 서울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온 성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쓰는 뜻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말은, 평범한 과정 속에 침투하고 개입하여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가리킨다.

성경의 이적들은 이교 문헌에 나오는 이적 기사들과는 달리 일시적이거나 허황되지 않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이적들은 분명한 질서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 역사의 '세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①출애굽 시대, ②선지자들의 시대, ③그리스도와 초대 교회 시대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은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적은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권위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해소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유혹이나 마술쇼로 나타난 적이 없다. 개인적 특권이나 돈, 권력을 얻기 위해 행해진 적이 없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결연히 거부하셨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갓 탄생한 교회로 하여금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 메시지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적을 사용하셨다.

성경에서는 이적들이 아무렇게나 행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된 메신저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등장한다. 이적이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무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이들 목격자의 증언이 최선의 증거이며,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증언했다.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내려간 부자의 예화"

를 말씀하셨다. 부지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다섯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끔찍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경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적을 본 형제들이 현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부자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6:31 말씀 중).

▶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의 메시야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이적의 목적임을 거듭 강조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 기도: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최고의 이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성경통독: (통독 본문 기록)

▶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비전2020운동본부
- 진중세례식을 마치고



우리 장병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완식 집사
(10교구)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지난 11월 2일(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육군제22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을 위하여 오전 6시 30분, 38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전날에는 서울교회 필그림 앙상블(관악기 연주)팀 6명이 앞서 도착하여 진중세례식에서 특별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장병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을 주기 위한 연습을 위해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장병들을 격려하고 일생에 한번 뿐인 구원받은 자로서 꼭 거쳐야 할 관문인 세례식을 집례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아직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으로 새벽 쌀쌀한 날씨 속에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고속 도로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의해 아름다운 단풍들과 또 자연풍광을 차창 밖으로 스쳐보며 다시 한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교회의 "비전2020운동"은 1996년 군복음 화협회의 비전2020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교회

는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1998년 기존의 우리교회 전도운동이었던 "비전2000운동"을 "비전2020운동"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진중세례식에 가는 버스 안에서 비전2020운동본부 차장으로 섬기시는 최임수 집사님께서 하루 일정을 발표하신 후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의 진중세례에 참석하시는 소감과 교회가 처한 상황과 지나온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서울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들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이어서 서울교회가 굳건히 이 시련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에 감동과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동해군인교회에서 시작된 세례식에 앞서 1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열정적이고도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 진정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자이신 유무열 군목의 개회선언에 이어 최광성 장로님의 대표기도와 류충기 지휘자 집사님의 아름다운 특송, 그리고 조원영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훈련병들의 진지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으로 세례식에 임하는 모습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삼위일체 하

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문답에 아멘으로 응답한 후 장석남 목사님의 집례로 65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교회 권사님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내려오는 훈련병들의 젖은 머리를 일일이 닦아주시며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고 함께 즐거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서울교회 필그림 앙상블의 아름다운 관악기 축하연주를 마치고 죄사함을 받은 65명의 세례자들이 첫 성찬식을 가지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루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을 갖고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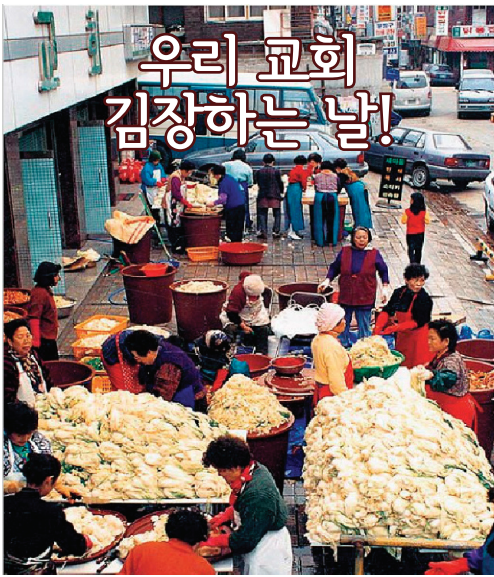
65명의 물 세례받은 훈련병들이 죄사함 받은 벅찬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먼 길 오가느라 피곤하심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일에 만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람된 하루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석양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며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논현동 시절 교회 김장하던 날

어린 시절, 11월이 되면 어머니는 일찌감치 김장을 준비하셨다. 가까운 가을 햇살에 잘 말린 고추를 깨끗이 닦아 방앗간에서 뻥아 놓으시고 맛난 젓갈을 여러 종류 사 오셨다. 숙이 짝 찬 배추와 무, 청각, 갓 등을 들이시면 그해의 김장이 시작되었다. 11월 변덕스러운 날씨에 바람 불고 어느 해에는 이른 눈도 날렸지만 배추를 쫄개고 소금에 절이시고 뒤집으시는 행동은 멈추시지 않으셨다. 동시에 집안에서 할머니께서는 젓갈을 끓여 체에 거르시고 어마어마한 양의 무채를 치시며 양념을 준비하셨다.

그다음날 아침 일찍 전날 절인 배추를 씻어 물을

빠시고 잘 절여져서 노글노글해진 노란 배춧잎을 켜켜이 들추시며 속을 넣으셨다. 때로 작고 노란 속잎을 툇 떼어 굴을 싸서 옆에서 걸리적거리던 우리 형제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시곤 하셨다.

아버지는 밖에서 장독을 깨끗이 씻고 정원 한 귀퉁이 땅을 깊이 파서 어린 시절 내 키보다 더 큰 장독들을 문으시고는 자잘한 하얀 자갈로 장독 입구 주변을 덮으셨다. 겨우내 김장 독 안에 흙이 들어가지 말라시면서... 김장을 마치고 겨우내 쓸 연탄 한 트럭을 들이면 그 해 겨우내기 준비는 끝난다. 김장 끝나니 폭설이 내려도 겁 안 난 다시던 어머니.

우리 교회 권사회(회장 허숙 권사)가 주축이 되어 교회 김장을 25일(월) 26일(화) 양일간 진행한다. 오정수 장로님께서 요즘 '금추'로 불리는 배추 350포기를 기증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힘들다, 어렵다라는 불평 한마디를 안 하시고 "예"하며 순종하셨다.

교회 설립 초기 논현동 시절 고 이옥녀 권사님, 고 백영희 권사님 등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께서도 엄청난 양의 김장을 직접 담그시면서 교회 발전에 힘을 보태셨었다.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 작년에도 교회가 어려워지자 절인 배추 400포기를 구입하여 직접 김장을 하시기도 하셨다.

몸이 고생하고 힘들 줄 아시지만 어려운 교회 형편을 위해 좋은 배추로 깨끗하게 김장해서 현금도 아끼고 좋은 김치로 성도들을 먹고 싶으신 권사님의 마음이 곧 자녀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먹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유은경 집사(편집부)



2018 교회 김장하던 날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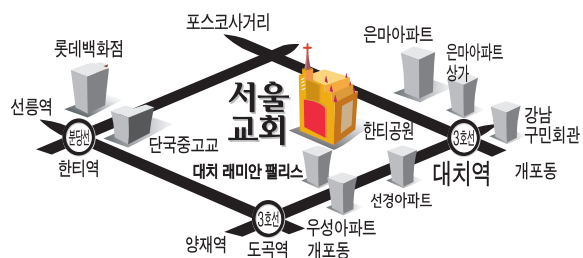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18일	월	롬 6:1-8:30		눅 1-4	
11월19일	화	롬 8:31-11:36		눅 5-8	
11월20일	수	롬 12-16		눅 9-11	
11월21일	목	고전 1-3		눅 12-16	
11월22일	금	고전 4-7		눅 17-20	
11월23일	토	고전 8:1-10:22		눅 21-24	
11월24일	주일	고전 10:23-12:31		요 1-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12-1·12-3 다락방 2부헌금위원일동 윤종현1 최죽희 6교구 일동 이주현·이주영 최미경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1월 17일: 정철웅(일반외과)
- 11월 24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동 정

- 개업: 10교구 김진희 집사 강남구 삼성로11 디에이치아너힐즈 상가 115호 다함네일
- 이전: 10교구 이경순 집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27번길 121-4 ㈜신우에프엔비
- 금주의 식사: 오윤걸 집사 김민아 집사 가정 (할머니 고 원복순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사골우거지탕 김치)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1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는 사망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2. 11월 24일(주)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8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